



눈여겨봐주세요...미래의 성악가들입니다 지난 30일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1회 호남예술제 성악 독창부문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기량을 한껏 뽐내고 있다. 왼쪽부터 장서연(하남초4), 양은석(불로초3), 곡민경(살리시오초3), 김준현(살리시오초2), 배우린(송원초2), 이찬홍(남초4), 박부경(불로초4). ▶성악 초등부 입상자 명단 17명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한센인 '아픔의 땅'에서 '치유의 섬'으로

1916년 자혜의원 설립  
100년의 숨결 다듬고 가꿔  
소통·평화의 공원 거듭나길



**소록도 병원 100년**  
'한센인의 섬' 소록도(小鹿島)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6년 설립된 자혜의원을 모태로 하는 국립소록도병원

원은 '인권유린 현장'에서 이제 '치유와 희망의 상징'으로 거듭나며 100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일 국립소록도병원에 따르면 다음달 17일 한센인 치료와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국립소록도병원이 100주년을 맞아 100년사 편찬 및 한센 역사자료 전시관 건립, 국제한센심포지엄,

### 변호사 개업인사

광주동법원장을 끝으로 37여 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하시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 전북 남원 출생
- 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제2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2기, 육군법무관
-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군산지원장
- 제주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 제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장

### 변호사 방극성 올림

- 업무개시: 2016. 5. 9.(월)
- 업무장소: 전주지 법원구 사명로 24 대동빌딩 203호(전주법원 옆)
- 대표전화: (063) 276-2500 - 팩 스: (063) 276-2501
- 개업소: 2016. 5. 20.(금) 17:00부터



지난달 28일 소록도 중앙공원 상공에서 내려다 본 한센인 거주지역(왼쪽)과 병원지역(오른쪽 흰 건물)의 모습. 과거 소록도는 직원·민간인 거주지역인 1번지와 한센인 거주지역인 2번지로 구분돼 있었으나 현재는 매년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개방된 공간으로 바뀌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센역사자료정리 및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소록도병원은 문화재 보존에도 나서 소록도강생원 감금실, 검시실, 식량창고, 소록도 자혜의원 등 역사현장 12곳을 등록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단추 끼우개, 개호발통, 치료용 칼 등 한센인 생활 유품 20여 점도 새로 발굴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 중이다.

한센 100년의 숨결을 이어받아 잘 다듬고 소중하게 가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전통을 준비하겠다는 게 소록도병원 측의 의지다. 특히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외딴 섬에 격리조치된 뒤 차별받은 한센인의 섬 소록도를 '천사의 섬'으로 바꾸기 위해 자원봉사자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소록도병원은 ▲지난 2012년 4041명 ▲2013년 3360명 ▲2014년 3054명 ▲지난해 2050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했다.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

애기 위한 '소록도 알리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년간(2012년~지난해) 소록도 방문객 수는 약 150만명에 달한다. 소록도가 한센인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격리와 차별의 섬'에서 서로 소통하고 격리장벽을 없애는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또 수탄장·벽돌가마터·제비선착장·감시도로·검시 및 감금실 등 한센인의 인권유린을 대변하는 공간 역시 치유의 공간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현재 소록도병원에는 한센인 5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직원 200명이 이들을 돌보고 있다. 소록도병원 측은 향후 소록도를 단순히 아픈 역사를 씻기고 치료하는 공간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동행의 공간으로 바꾸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록도병원은 소록도를 역사·인권·생태·문화·복지·건강 등 6개 테마가 살아 숨 쉬는 복합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박형철 국립소록도병원장은 "과거에 비해 편견은 많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한층의 낙인은 남아 있다"며 "조금의 불편한 시각도 말끔히 사라지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란다. 이제 소록도가 아픔의 역사를 딛고 많은 이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며 서로 소통하는 평화의 장소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iju@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오월 광주, 올해는 '임'을 부르고 싶다

5월단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촉구...야당, 정부 압박

올해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식에 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 을까. <관련기사 7면>

5월 단체와 시민사회는 기념식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문제'로 기념식이 반쪽짜리로 소개됐는데, 올해는 보훈처가 전향적으로 결정해 하나 된 기념식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야당도 '여소야대'로 재편된 정치지형을 이용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정부에 압박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공식 기념식에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제창 방식으로 불렀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제창 대신 합창단의 합창으로 바뀌었고 공식 식순에서도 빠져 식전공연으로 대체됐다.

5·18 단체와 시민사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고 기념식에서 합창이 아닌 제창하려는 요구가 번번이 무산되자 최근 3년간 정부 주관으로 치러지는 기념식을 보이콧

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되는 기념식 대신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열거나 공식 기념식장 인근에서 기념식을 지켜왔다.

하지만 올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의 기념식을 열자는 의견이 5월 단체와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행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 주관 기념식 외에 별도의 기념식을 준비하지 않고, 보훈처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며 "반쪽짜리 기념식이 아닌 하나의 기념식을 치를지 여부는 보훈처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최근 3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국민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면서 합창 형식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통합의 첫걸음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이라며 "올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반드시 제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전남 섬 57개 사라졌다 매립 등으로 2219→2162개

전남도내 섬이 기존 2219개에서 2162개로, 57개가 줄어든 전망이다. 유인도의 무인도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지난 29일 '섬 자원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맡은 목표대 도서문화연구원 따르면 전남의 섬 갯수는 지난 2015년 통계연보에서 밝힌 2219

개에서 57개가 감소한 2162개로 결론지었다. 유인도는 296곳에서 279곳으로, 무인도는 1923곳에서 1883곳으로 각각 줄었다. 이는 시·군과 협의 거쳐 조만간 공식 확정된다. 3~4년제 유인도 18곳이 무인도로 바뀌었고, 5곳의 무인도에 거주민이 생기면서 유인도가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생명의 땅 전남!**

밥맛·생산·품질 분야 종합평가에서 올해의 최고쌀로 선정된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제17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  
★ 전남쌀 9년 연속 수상 ★

**명품 친환경 전남쌀이 가족의 건강에 좋습니다!**

나주

드림미  
나주농협 061-335-7534

담양

대송맑은 담양쌀  
담양농협 061-383-4503

고흥

소호천사 건강미  
고흥농협 061-835-0540

보성

녹차미인 보성쌀  
보성농협 061-852-6665

강진

프리미엄 호평  
강진농협 061-432-0560

해남

한눈에 반한 쌀  
해남농협 061-535-5636

영암

달지쌀 골드  
영암농협 080-470-0007

영광

하늘아래 한 쌀  
영광농협 061-472-0117

무안

황토랑쌀  
무안농협 061-452-6605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영광농협 061-352-2475

**전라남도**  
Jeolla Namdo

NAVER **다미**  
맛있는 전남쌀을 남도장터 (www.jnmall.kr) 에서 구입하세요.